

抵抗器, 콘덴서, 半導體 등 対象

— 各国서 1개 検査機關 추천 —

IEC (國際電氣標準會議)는 올해부터 電子部品에 대한 國際的인 品質認證제도 (IECQ-system)를 발족시켰다.

81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IFC認證管理委員會 (CMC)에서 결정된 이制度는 品質, 性能 등 면에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電子部品을 그때마다 工場單位, 메이커單位, 國家單位로 試驗·検査할 경우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國際規格에 합치됨을 1개 國家가 인증하면 다른 國家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 질이 높은 국제규격이 적용되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뢰 할 수 있는 試驗検査所가 試驗検査를하고 그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品質이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高水準의 電子部品 유통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電子部品은 노동집약적인 것과 자본집약적인 것이 있으며, 생산은 유리한 환경을 찾아 상당히 많은 국가에 분포되고 있고 多国籍型 기업이 사업을 하는 분야도 많아 그러한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2국간, 3국간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소비측에서 보면 현재 電子部品은 단순히 電氣電子工業의 素子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自動車 등 다방면에 응용되고 있으며 수요자는 많은 국가에 걸치고 있다.

이에 따라 電子부品の 국제무역 수량은 거대하며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IECQ-system에 의한 국제적인 品質認證制

度는 電子부品の 국제거래를 보다 효율화하여 品質 성능면에서의 트러블이나 클레임 등의 감소를 포함, 무역의 원활화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電子部品 분야에서는 제품의 品質이 크게 요구되어 시험, 검사 데이터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수년전부터 일부 국가간에 品質認證制度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계획되고 있었다. 예를들면 歐洲電氣技術標準化委員會 (CENELEC)의 電子部品委員會 (CECC)가 歐洲 각국간의 品質認證制度를 통합, 1개국에서 발행된 증명서를 다른 참가국이 받아들이는 制度를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등 歐洲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같은 일부 국가간에 운용되는 認證制度는 地域認證制度라고 불리는데 지역인증제도는 참가국간의 무역의 확대와 원활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반대로 非參加國으로서는 무역상 큰 장벽이 된다. 美國, 日本, 東南亞 등 電子部品 주요생산국이 이 CECC制度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들 국가는 對歐洲 輸出에 있어서 불편을 겪게된다. 실제 문제로서 CECC제도에 歐洲지역 이외의 국가가 참가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편 국제적인 認證制度가 있으면 그 물을 받아들이고 또 충분한 기술수준을 보유하는 국가는 아무런 제약없이 참가할 수 있다. IECQ는 System을 때때로 발생하는 폐쇄적인 1개국내 지역인증제도를 폭넓게 국제적인 것으로 한다는 뜻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다.

○ 対象品目

IECQ-System은 물이 마련되어 83年 1月부

● 海外電子市場情報

터 출범하였는데 이 制度에서 사용되는규격(시험검사의 기준이 되는 製品스펙 등)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 일부 미정비의 전을 포함하여 당면제도의 대상으로 오를 것이 예상되는 품목은

- 1) 抵抗器(固定抵抗器, 電力形抵抗器, 써미스터 등)
- 2) 콘덴서(固定磁器콘덴서, 알루미늄 電解콘덴서, 金屬化 플라스틱, 필름 콘덴서, 탄타르 固体電解콘덴서 등)
- 3) 포텐셜미터
- 4) 코넥터(라디오周波類 同軸코넥터, 印刷回路基板用코넥터 등)
- 5) 光学纖維
- 6) 半導體 및 IC(메모리식 IC, 電圧調整다이오드 등)
- 7) 기타 磁器코어 등이다.

방대한 電子部品群에서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 대상 품목은 금후 IEC규격이 정

비되는 대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 試驗檢査機關

認証制度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규칙의 확립과 対象品目的 선정 및 기준이 되는 규격의 제정과 함께 어디에 시험검사를 맡길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된다. IECQ-System에서는 이같은 試驗檢査기관은 각국이 하나의 機關을 추천하며 그 기술적 능력이 타당한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국가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어느 국가의 試驗檢査機關을 3개국의 전문가가 방문하여 심사보고를 IECQ-System의 認証管理委員會에 보고하며 이 보고를 받아可否를 결정한다.

80년이후 이같은 상호방문과 심사가 이루어져 현재 다음과 같은 11개 試驗檢査機關이 인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제도에 참가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IECQ의 各国參加機關 및 認定된 試驗檢査機關

参 加 国	参 加 代 表 機 関 名	認 定 된 試 驗 機 関 名
濠 洲	濠洲電氣技術委員會	濠洲規格協會(SAA) 品質保證·認証部
벨 기 에	벨기에電氣技術委員會	벨기에檢査所(BOT)
덴 마 크	덴마크電氣技術委員會	덴마크應用電子研究센터(EC)
프 랑 스	電氣技術聯合(UTE)	國家電子部品質業務本部(SNQ)
西 獨	도이치電氣技術委員會	도이치電氣技術委員會試驗所(VDE-P)
에 이 레	工業調査標準化研究所(IIRS)	工業調査標準化研究所(IIRS)
이 스 라 엘	이스라엘規格協會	이스라엘規格協會(SII) 電氣技術試驗所
日 本	日本工業標準調査會	日本電子部品信賴性센터(RCI)
스 위 스	스위스電氣技術協會	材料試驗·카리브레이션研究所(MPE)
英 國	英國規格協會	電氣品質保證局(EQD)
美 國	電子部品認証協議會(ECCB)	언더라이터즈·래버러토리(UL)

美国的 家電製品 販売現況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好調—

美国的 家電製品 製造業者協會 분석에 의하

면 81년중 에어컨, 세탁기 등 美国的 家電製品 出荷量은 80년의 3,250만대에 비해 50% 증가한 3,410만대를 기록하여 美国的 家電製品 市場은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品目別 現況을 보면, 첫째, 주방용 電氣用品 중 최대 需要製品인 냉장고는 市場飽和 상태 및 경기침체로 인해 80년 中에 판매고가 2.4% 감소했으나 82年度에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둘째, 電氣 및 가스레인지 판매 또한 80年 中 9% 감소했으나 81年, 82年 中 電氣레인지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가스레인지는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째,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및 同 콤비네이션은 他 家電製品에 비해서 23%의 판매증가율을 기록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직장여성의 증가에 따라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주부들에게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은 기존 요리기구보다 많은 시간절약과 에너지절약 효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째, 에어컨市場은 80년 中 매우 침체 되었으나 81년도에는 前年對比 20%의 販賣伸張率을 기록하여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복추세는 금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極小型 컴퓨터 터미널 開發

— 포켓속에서 情報蓄積 可能 —

MSI Data Corp.에 의해 서즈나 코트포켓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小型포터블 컴퓨터·터미널이 소개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싼 價格의 이 製品은 情報를 기록했다가 후에 직장 大型컴퓨터에 情報를 移傳시킬 수 있도록 考案되었다.

Costa Mesa에 위치한 MSI Data Corp.은 MSI55라 불리우는 이 製品의 價格이 US弗 20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SI55의 주요 용도는 販賣注文이나 在庫管理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販賣員이 하루동안의 情報를 자기의 포켓 터미널에 기록했다가 마지막으로 電

話機에 연결하여 蓄積된 情報를 中央컴퓨터에 보내어 빠른 情報處理를 할 수 있는 것이다.

對프랑스, 트랜지스터素子 市場

— 價格競爭力보다는 유명브랜드業体和 提携가 바람직 —

프랑스에서 주로 生産하고 있는 트랜지스터素子는 전체효과 트랜지스터이며, 주로 先進國에서 그 需要가 많아 대부분을 輸出하고 있다. 프랑스는 매년 5%의 生産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世界各國에서 그 需要가 계속 늘고 있으며, 價格도 西獨이나 기타 선진제국의 製品價格보다 약간 저렴하여 輸出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다른 半導體와는 달리 輸出이 잘되고 있는 同品目の 生産展望은 향후 5년간은 3~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生産者組合에서는 낙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製品과의 경쟁에서 프랑스製品은 品質이나 材質이 우수한 반면에 價格상으로는 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약 9~10배가 비싸 프랑스 國內市場에서의 경쟁은 절대적으로 韓國製品이 우세하다.

● 트랜지스터素子 生産 및 需要実績

(單位: F.Fr. 백만)

品 目 名	1980		1979	
	生産	需要	生産	需要
트랜지스터素子	608	477	578	446
기타 半導體	2,322	3,299	1,715	2,119
합 計	2,930	3,776	2,293	2,475

(資料: 프랑스 電子製品 生産業者組合)

프랑스에서는 트랜지스터素子の 輸出入이 모두 自由化되어 있는 品目이며, 輸出入 절차상에 있어서도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나 특색이 없다.

한편 關稅制度 및 關稅率을 보면 EC會員國들 간에는 다른 商品들이나 마찬가지로 無關稅制

● 海外電子市場情報

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國家들은 트랜지스터素子 자체의 경우 關稅率 17%를 적용 받고 있으며, 同部品の 경우 9%의 關稅率을 적용 받는다. 그리고 同商品(部品포함)에는 17.6%의 正常附加稅가 적용된다. 따라서 韓國이나 기타 開途國들도 關稅혜택을 받지 못하며 17%의 關稅를 지불해야 한다.

트랜지스터素子는 게르마늄과 실리콘을 재료로 하여 製造되기 때문에 이들의 品質이 우선적으로 좋아야 한다. 좋은 品質의 기준은 原資材(匪鉛精鑛 및 工業用金屬실리콘)를 精鍊하여 超純度의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으로 製造하느냐에 眼點을 두고 있다.

또한 비교적 그 用途가 많아지고 있는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경우는 게르마늄트랜지스터보다도 汚染度가 높은 關係로 消費者 보호를 위해서 公害防止策을 세워 최대한으로 國民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製造上에 各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랑스의 트랜지스터素子 生産業者組合 및 生産業者와 기타 輸入業者들로부터 入手한 가격 동향을 보면 工場渡價格은 1kg당 약 F.Fr. 600 정도이며, 도매가격은 F.Fr. 900~1,000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소매가격은 F.Fr. 1,200을 상회한다고 한다.

그리고 輸出價格은 輸出대상國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先進諸國을 平均했을 경우에는 F.Fr. 980정도이고 기타 國家들을 平均했을 경우에는 F.Fr. 680정도이다. 그리고 輸入價格을 보면 輸入對象國別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一률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으나 F.Fr. 120선에서부터 F.Fr. 1,200선까지 아주 다양한데, 우리나라 商品의 경우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輸入해 오고 있다.

流通構造를 보면 대부분이 輸入業者를 통해 國內需要量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 또한 價格이 저렴한 개도국들로부터 輸入해오고 있는 量이 점차 더 증가하고 있어 輸入額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무게로 보면 輸入量의 60%에 해당되는 막대한 量이다.

輸入業者를 통하지 않고 自國生産品을 都売業者를 통해 國內市場에도 充當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80年度의 경우에는 市場占有率이 40%를 못미치고 있다.

80年度 말 경쟁國別 尙프랑스 進출현황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약 F.Fr. 2,450만의 輸出実績을 올려 프랑스 總輸入額의 10.4%를 점유했으며, 이에 이어 香港이 8.1%, 日本이 2.6%, 그리고 自由中國이 2.2%를 각각 점유함으로써 主要 경쟁國으로 대두되었다.

81년 8월말 실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前年同期對比 45%가 감소되어 말레이시아 및 香港에 뒤지고 있음에 반해 日本은 前年同期對比 10.2%가 증가된 F.Fr. 850만을 輸出했으며, 말레이시아는 44.2% 증가된 F.Fr. 2,420만을 프랑스에 輸出하여 전년도말 실적에 거의 도달했으며, 香港은 13.0%가 증가된 F.Fr. 1,410만을 輸出하여 自由中國, 필리핀 및 싱가포르의 尙프랑스 輸出実績(감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年度別 尙프랑스 輸出現況에서 나타난 점은 77년도의 호경기 이후에 계속 2년 동안 감소현상을 보이던 輸出이 80年度에는 약간 회복세를 보였으나 81年度 8月末 실적상으로는 前年同期對比 45.1%나 감소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尙프랑스 輸出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需要業者들이 요즘에는 價格만 좋은 商品을 찾고 있지를 않고 品質과 또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의 商品을 찾고 있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러한 프랑스 需要業者들의 취향을 파악하여 프랑스의 有名會社와 브랜드 제휴를 맺음으로써 同市場을 覬覦할 만

한 속도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처프랑스 輸出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프랑貨 決済方法을 우리 業体나 銀行측에서 기피하고 있는 데에도 輸出不振의 원인이 되고 있다.

現地에 나와있는 韓國支社들만 해도 프랑貨 가치가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프랑貨로 決済하여 輸出한다는 것은 앞서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결과라 하여 바이어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內的 또는 外的인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트랜지스터素子の 처프랑스 輸出은 감소될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은 同市場을 확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自由貿易을 채택하고 있는 國家이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면이 많고 의심이 많아 실제적으로는 保護貿易主義를 실시하면서 自國의 産業을 보호 내지 육성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實業者 수가 200만을 육박하고 있고 또한 執權社會黨의 구호가 失業者救濟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商品의 輸入절차가 대단히 까다로워졌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졸렬한 방법으로 稅関에서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든 간에 되도록 外國商品을 장기간 보관하여 「릴리버티 타임」에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또한 경쟁국과의 경쟁상으로는 말레이시아가 프랑스와 브랜드 提携를 맺게되어 프랑스측으로는 말레이시아製品을 사용하는 것이 이점으로 이익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나라 商品보다도 價格이 비싼 同商品을 政策的으로 輸入하고 있는 데에도 우리의 장벽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난관을 뚫고 오직 價格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同市場을 확대하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다. 이것은 81年度 8月末 輸出実績을 참고해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더군다나 社會黨이 집권하면서 부터는 프랑스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경향이 많으며, 내부적으로도 대단히 불안하고 어수선하여 프랑스의 대부분 貿易業体에서도 이러한 동정을 살피면서 貿易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量의 商品만을 확인한 다음 購買하는 경향이 많아 半導體素子の 처프랑스 輸出전망은 매우 어둡다 하겠다.

UAE, 냉장고시장 進出擴大 展望 밝아

一年間 輸入規模 3,000만弗,

이탈리아·美國 등이 市場席卷—

UAE는 여타의 中東產油國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매우 유망한 冷藏庫 輸出市場이다. 그것은 첫째, UAE에는 냉장고 및 類似機器 生産施設이 전혀 없는데다 産業構造上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 소지가 없다는 점, 둘째, 이 제품은 이미 생활필수품으로서 매년 그 需要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셋째, 中東特有의 기후에 의한 製品수명의 단축으로 代替需要의 週期가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총인구의 65%를 차지하는 外來住民의 대다수가 값싸고 견고한 中級 이하의 製品을 선호하는 반면 美國, 英國, 이탈리아, 日本 등의 高級製品 需要는 일부 上流層에 국한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輸出확대 가능성은 그만큼 높은 것이다.

○ UAE의 年度別 냉장고 輸入実績

年 度	數 量(台)	金 額(US 弗)
1978	55,676	12,375,270
1979	65,862	16,107,277
1980	77,605	21,776,153
1981(1~6月)	65,359	19,201,275

UAE의 冷藏庫輸入은 1978~80년 사이에 연

● 海外電子市場情報

평균 30% 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印度,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인접국으로 부터의 移住民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그만큼 新規需要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81년에는 1~6월까지의 輸入実績이 79年 전체実績과 맞먹고 있어 12月까지의 실적을 合算하면 US弗 3,000만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탈리아産이 최고의 市場占有率을 기록하고 있는데, 美国이나 英国, 日本 등의 高級品과 비교해 볼때 耐久性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製品의 容量도 다양해서 소비자들의 호감을 사고있는 것이 최대의 무기로 알려졌다.

日本, 美国 등은 주로 高級製品을 공급하고 있는데, 日本産은 80년을 고비로 증가율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지속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는 美国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日本이 마이너스를 보인 주요인은 容量, 약세사리, 디자인의 高品位 유지 등 美国製가 갖는 上流기호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代替가 뒤떨어

○UAE의 国別 冷蔵庫輸入実績

(单位: 数量(一台), 金額-US弗寸)

国 別	1979		1980	
	数 量	金 額	数 量	金 額
韓 国	2,433	252	7,010	888
이탈리아	38,090	7,807	43,743	10,876
日 本	13,126	3,123	10,316	2,602
美 国	5,256	2,737	8,198	4,924
브 라 질	86	31	3,426	1,052
프 랑 스	690	146	911	245
西 独	677	331	734	229
홍 콩	1	1	668	52
自由中国	2,060	562	367	77
英 国	440	110	351	62
캐 나 다	132	69	325	189
印 度	350	55	310	57
싱가포르	1,445	491	223	192
其 他	1,076	386	1,023	325
合 計	65,862	16,107	77,605	21,776

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中上級品 市場은 홍콩, 自由中国, 싱가포르, 韓國 등 몇몇 나라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의 中下級品 공급국은 점차 輸出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인데, 이는 우리나라産이 가격과 품질에서 다른 나라 제품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UAE政府는 이 製品의 輸出入에 대해 일체의 統制를 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 1) 輸出入에 대한 政府의 불간섭 원칙,
- 2) 輸出入의 無許可 制度,
- 3) L/C의 무담보 개설,
- 4) 완전자유경쟁 價格制度,
- 5) 貿易촉진을 위한 自由貿易地帶의 설치 등이 좋은 본보기다.

그러나 UAE政府는 최근들어 「貿易代理法」을 발효시켜 外國의 모든 生産 및 輸出業체들은 UAE내에 製品當 1명의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製品의 部品공급도 代理人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UAE의 關稅率은

- 1) 關稅区域내에서의 통관은 關稅納付와 함께 담보물을 유치한 후에 가능하다.
- 2) 自由貿易地帶에서는 製品반입이 자유로우며, 關稅区域으로 移送할 때까지 稅金이 부과되지 않는다.

輸入關稅率은 港口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두바이港에서는 3%의 從價稅가 붙으며 輸入稅 外의 稅金은 없다.

우리나라의 對 UAE 냉장고輸出 확대방안은 첫째, 價格이 키포인트가 아니다. 먼저 이야기 했듯이 냉장고는 이미 이나라 國民의 생활 필수품이 된지가 오래이다. 國民所得도 높은 편이어서 어느 계층이건 質 좋고 값비싼 냉장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價格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流通狀況을 살펴보면 간단히 드러난다. 즉, 여타의 中東諸國과 마찬가지로 UAE에도 특별한 거래

채널없이 輸入業者나 에이전트가 소비자에게 直販하는 형식인 반면, 소비자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同一한 産地의 同一容量, 브랜드, 規格의 제품이라도 가게마다 價格의 차이가 있다. 政府의 價格不統制 原則의 영향 탓이겠지만 소비자의 製品선택 기준이 價格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製品의 브랜드, 原産地, 性能, 디자인이 소비자 선호를 좌우한다.

현재 販賣量이 가장 많은 容量은 10~14立方피트 級의 中小型이다. 우리나라 製品은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現地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弘報가 뒤지고 있으며, 디자인의 변화, 악세사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 市場의 추세 변화 등에 대처하는 전략이 부족하다.

印, 컬러TV 放映說

—83年中, 現在 準備段階—

印度는 현재 컬러TV 放映을 뉴스나 음악을 중심으로 저녁 3~4 시간에 걸쳐 하고 있어, 컬러TV 放映에 대해서는 아직 장래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82년의 아시아大會를 앞두고 競技実況을 컬러로 放映해 주도록 國內外的으로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印度政府로서는 편의적으로 海外用 컬러放送用 設備로서 放送用 移動車輛(OBV) 4대를 外國企業에 發注하여 82년 6月에는 도착할 예정이라 한다.

이와는 별도로 政府는 전부터 컬러TV의 國內放映에 대해 여러가지로 조사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83년 중에도라도 放映을 개시할 방침이란 정보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자연히 컬러TV放送局의 建設과 컬러TV세트의 生産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放送局 관계에서는 首都 뉴델리 외에 1~2局을 開設하며 그에 필요한 設備機材는 國內에 公供給이 없으므로 대부분을 輸入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컬러TV 세트는 國內生産이 고려되고 있다 하며, 이미 美企業(제니스社)이 正식으로 合資進出을 계의했다는 말도 있다. 政府의 최종방침이 83년전에 발표되기까지는 제의가 사실상 保留되겠으나 발표되면 3個月內에 企業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政府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 印度에는 약15만台的 컬러TV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外國에서 개인적으로 輸入한 것이며, 西印度 接境地帶에서는 파키스탄의 컬러放映을 수신하거나 VTR 등을 보고있는 실정이라 한다.

黑白TV의 普及台數는 210만台이며 컬러TV가 반영되면 그 需要는 黑白TV의 약20%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컬러TV의 生産에 있어 合資할 경우에는 40%까지 資本참가, 그리고 技術제휴하면 로열티方式의 어느 것이라도 인정할 방침이라 하며, 또한 外國企業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印度측 파트너의 그것과 併用(예를 들어 아쇼카 내쇼날, 카니시카 RCA 등)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印度가 컬러TV를 반영한다면 貧富차이 때문에 需要層은 自然히 한정되어 부유층의 소유물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정된 계층을 위해 커다란 投資를 할 것인가에 대해 당연히 논의가 일어날 것 같다. 20인치 컬러TV의 生産코스트를 政府에서는 I. Re 1만1,700(US\$ 1 = I. Re9.00)로 보고 있으나 인플레이 관계로 실제로는 I. Re 1만5,000~2만까지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해 만약 投資동기를 輸出産業에 둔다면 輸出이 撮携의 重要요건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外國企業의 對應도 自然히 달라지기 마련이다.